

# 주민들 탈출 몸부림...공항서 노숙생활

‘피폭 공포’ 후쿠시마...한국교민 대피령도

대지진과 쓰나미에 휩쓸린 데 이어 원전에서 방사능이 유출될 가능성마저 제기된 일본 후쿠시마(福島)현의 주민들이 위험지역을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5일 오후 5시께 찾아간 후쿠시마 국제공항은 도쿄나 오사카 등 방사능에 노출될 우려가 없는 곳으로 떠나려는 주민 수백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공항의 출발 로비와 1층 북도 골목에는 항공권을 확보하기는커녕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옮리지 못한 주민 150여 명이 담요를 깔고 앉아 기약없는 ‘노숙 생활’을 이어갔다.

가스로 티켓을 확보한 주민 200

여 명도 항공기를 타기 위한 게이트로비에 설치된 TV에서 나오는 원전 3호기 폭발 장면을 미동도 없이 굳은 표정으로 바라봤다.

검색대 앞에서 등료와 단 둘러서 쉬어가는 목소리로 승객을 안내하던 ANA항공 여승무원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후쿠시마 공항을 찾은 것은 개항 이래 처음”이라며 허리를 내둘렀다.

공항에서 며칠째 노숙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 상당수는 어린 자녀까지 딸린 가족들이었다.

원전에서 남쪽으로 약 50km 밖으로 떨어져 있지 않은 이와카시(市)에 산다는 훈마(여·48)씨는 “방사능은 물

뿐이고 아이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쌍동이 언니가 사는 나고야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동안 대기자 명단에도 이름을 옮리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정부는 원전에서 20km 이상 떨어진 곳은 안전하다고 했지만 걱정은 떨칠 수가 없었다”며 곁에서 휴대용 게임기에 열중해 있는 10살 먹은 아들과 14살 딸을 평화 표정으로 바라봤다.

이날 후쿠시마 공항에서는 산포로 행 4편, 오사카행 11편, 도쿄행 2편 등 총 17편의 항공기가 이륙했다. 그러나 피폭 우려가 없는 안전한 곳으로 떠나려는 주민들을 모두 태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한편 후쿠시마에는 교민 등 한국인이 약 2700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준 외교통상부 신속대응팀장은 이날 센다이(仙臺) 총영사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후쿠시마에는 재일동포 일본·특별영주권자 1700명과 유학생·기업인·종교인 1000여명 등 2700여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정부는 특히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에게 신속히 안전지대로 대피하라고 공지한 상태다. 30km 이내는 사실상 진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라고 밝혔다.

2700여명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본 정부가 외출 금지 지시를 내린 후쿠시마 제1원전 20~30km 범위 안에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연합뉴스



14일 일본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 한 자위대원이 폐허가 된 집에서 구출한 생후 4개월 된 여자아기를 안고 있다. /연합뉴스

## 도쿄 등 생필품 사재기 조짐

일본 강진 피해지와 떨어진 도쿄 등 수도권에서 사재기 조짐이 보이면서 정부 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등지에서의 사재기 현상이 심화될 경우 피해지역에 생필품 등의 공급이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각 성청(부처) 관계자들을 소집해 회의를 갖는 등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 15일 경제산업성이 각 성청을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14일 수도권의 대형 슈퍼마켓의 발주량은 먹는 물이 평소의 10배, 청국장과 비슷한 일본인의 애호식품인

‘낫토’가 2~3배, 두부가 1.7배, 우유가 1.5배 증가했다.

매출액의 경우도 닭고기가 9배, 통조림이 3배, 대형 페트병 음료가 1.8배, 쌀이 1.6배로 늘었다. 식료품 이외에도 휴대용 가스레인지 6배, 자전거는 3배, 마스크는 2.5배 증가했다.

주유소에도 고객들이 몰리면서 휘발유가 품절되는 사태도 나타났다. 지난 14일 밤 니시신주쿠(西新宿)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는 종업원들이 도로에 나와서 “휘발유가 품절됐다”고 외치는 모습이 목격됐다. /연합뉴스



15일 일본 이와테현 스미타의 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 도로에 줄지어 선 차량 행렬. /연합뉴스

## 日日만평

- 김종우



어쩌면, 다 묻혀서 좋지, 뭘...

“기름넣자” 줄 선 차량들

에 줄지어 선 차량 행렬.

## 사원모집

당사는 에어컨 냉·난방기 도소매 전문업체로서 회사와 더불어 성장할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 1. 모집분야

모집분야	인원	담당업무	자격요건
경리·회계직	남, 여 0명	경리·회계업무 (기혼자 가능)	경력자 우대
근무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745-18		

### 2.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본, 사진

### 3. 복지제도

4대보험, 상여금, 성과급

### 4. 접수처

FAX : 062-374-9991  
TEL : 062-372-9991~5



(주)대우캐리어 광주총판

##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연수생 모집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한자·한문지도사 자격!

\*교육과학기술부(2010-1호)공인받음\*

자격증급별	개강일시 (과정별)	수업기간 (24주)
1. 한자지도사 3급	• 토요일 오전반: 2011.3.19(토) 09:30 • 월·목 오후반: 2011.3.21(월) 14:00 • 월·목 아간반: 2011.3.21(월) 18:20	2011.8.27 (96시간)
2. 한문지도사 2급	• 월·목 오전반: 2011.2.21(월) 09:30 ※ 2011.3.3(목)까지 추가모집함	2011.5.19 (96시간)
3. 한문지도사 1급	• 금요일 오전반: 2011.3.18(금) 09:30	2011.8.26 (96시간)
4. 한문지도사 특급(총장)	• 토요일 오후반: 2011.3.26 수료 ※ 2011.4.2(토) 개강 예정	2011.9.10(금) (96시간)

\* 과정별 지도교수 네분이 맹정의 합니다.

- 모집기간 : 2011. 02. 18 ~ 2011. 03. 21
- 모집인원 : 각 과정별 25명
- 수 강 력 : ₩350,000 (농협 : 175375-56-065137)
- 자격의 활용
  - 방과후 학교 강사 ■ 학원설립 및 강사 ■ 각종 사회교육기관 강사
  -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법) 자격취득
  - 국·한문 훈용급수 (고급~중급) 자격취득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 문 의 : (062)366-9666, 367-8666, 원장 011-607-6292
  - ▶ 접수처 : 광주·서구·농성동 633-28 (건강관리협회 부근)

국가공인자격관리기관  
(사)한자교육진흥회 광주전남연수원

## 의료개방과 통합의학 시대를 준비하는 전통침구학 연수세미나

- \* 의료개방 대비, 통합의학에 필요한 인재양성
- \* 해외 침구사 양성 및 한방병원 설립, 취업지원
- \* 중국 중의대학과 학술교류로 중국자격증 취득가능
- \* 가정생활상식, 자가진단을 위한 세미나
- \* 27년간 침구학을 전문으로 강의한 교육기관

### 교육과정 안내

- 기본과정(4개월)
  - 주요과목 : 침구학개론(침뜸기초, 경락경혈, 침구치료), 한방기초
- 중급과정(6개월)
  - 주요과목 : 침구치료학, 진단과치료, 자연식품과한방
- 전문과정(1년)
  - 주요과목 : 중국침구학연수, 중의학, 경혈학, 진단학, 방약학, 해부학 등
- 연구과정(3개월~1년, 과목별)
  - 주요과목 : 시암오향, 동씨기혈, 활법운동처방, 명리학 등

※ 본 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공개강좌

3월 25일(금) 14시  
4월 9일(토) 14시

▶ 광주본원 위치 : 화정역 4번출구 200m 인근, 추선향관 뒷편



CH 중국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본원 : 062)236-3516

서울본원/대전분원/대구분원/부산분원/울산분원/광주분원/제주분원

## 홀페이지는 기본 이제는 모바일 홍보시대!

모바일 홈·스마트폰 어플 개발 (아이폰, 안드로이드)

(주)쉐이커스가 스마트폰 어플로 여러분의 업체를 홍보해드립니다!



개발이력	홍보용 어플	소셜 커머스 '티켓킹'
스포츠 게임 천국		외다수
윙 오브 드래곤		
진상 액션		
마루아 랜드		
몬스터 퀘이스		
외다수		

문의 전화  
070·7581·7766  
010·3549·9358

(주)쉐이커스